

●연중 제 31주일 강론

일본인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1923~1996)의 작품 ‘침묵’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일본의 천주교 박해가 한창이던 때에 두 명의 젊은 선교사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에 입국합니다. 그러나 이내 붙잡혀 한 명의 사제는 순교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옛날 자신들의 신학교 스승이었던 교수 신부의 권고를 받아 배교하게 됩니다.

교수 신부 역시 먼저 배교한 뒤였습니다. 둘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만나지만 서로 고개를 돌려 애써 외면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감과 모멸감을 품고 있으며,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들의 추한 얼굴과 살기 위한 배교의 역겨움이 상대방을 통하여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멸할 때,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단점과 미움은 바로 내 자신에게도 있기에, 내가 나의 단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 비추어 지는 것입니다. 분명 내게도 있는 단점과 잘못을 우리는 덮어 주지 못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고집이 센 교우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나, 그 고집이 제게도 있었고, 남의 험담을 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교우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도 어느 사이 내 자신이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 다.

용서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탓하면서 정작 제 자신이 남을 용서 못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고 포용하시는데 죄 많은 제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두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감히 제가 버렸던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에서 제 허물을 발견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잣대가 남을 단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자비는 끝없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지혜서의 저자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지혜 11, 24).

하느님의 자비

가끔은 손가락의 지문을 보며 경탄하게 됩니다. 그 작은 손가락에 어떤 문양을 그려 넣었기에 60억 인구가 모두 지문이 다를까 생각합니다. 생존하는 지구상의 인구뿐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현존하는 모든 인류 중에 손가락의 지문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여도 그 판단된 사람 역시 하느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되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보편성과 하느님 사랑의 용서와는 달리 선을 굶고 자신이 심판관인양 처신하며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무례히도 구분 짓곤

합니다.

오늘 복음의 키 작은 세관장 자케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편협한 구원관에 일침을 놓으시는 예수님 사랑의 보편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을 곤궁에 빠뜨린 것은 지나친 세금 포탈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고혈을 짜내며 세금 징수에 앞장섰던 세리들은 그야말로 백성의 지탄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은 경멸과 저주의 죽일 놈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단죄의 인간 무리를 쫓는 데에는 반드시 세리가 끼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세리와 도둑’, ‘세리와 강도’,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세리와 이방인’ 처럼 말입니다.

그토록 경멸과 저주의 대상인 세리 마태오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치명타를 안겨줄 위험천만의 일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원 받아야할 사랑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자케오를 경멸하면서 못마땅해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루카 19, 9~10).

이것이 하느님 자비의 구원관이며,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매광하 신부 <춘천교구 계제마니 피정의집원장 >

-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최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축하! 서부공소 창립 12주년 기념 한마당

오늘은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이 창립기념 및 축하의 자리를 함께 갖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정겹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커뮤니티 센터(현지 성당 옆)
- ▶순서: 기념식 및 식사-오후 5시 15분~6시
여흥의 시간- 6시~7시
장내정리-7시~ 7시15분

◎ 11월 사목회의

11월 11일 미사후: 이동기 형제집
(216 Westhollow Court/ 519 884 4870)

◎ 바뇌기도회 모임

11월 14(수) 오후 7시30분 (이동기 형제집)

◎ 첫영성체 교리반모집

- ▶대상: 3 학년 이상 어린이
- ▶접수마감: 10월 31일
- ▶수업시작:11월
- ▶문의: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519 580 1115)

◎ 11월 구역모임

- ▶1구역 11월 18일(일) 미사후 유무열형제집
- ▶2구역 11월 17일(토) 오후7시 노재현형제집
- ▶3구역 11월 9일(금) 오후6시 이창렬형제집
- ▶4구역 11월 23일(금) 오후7시 정덕형제집
- ▶5구역 11월 17일(토) 오후7시 구본우형제집
- ▶6구역 11월 24일(토) 오후7시 우승민형제집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클럽주소는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입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오늘은 교무금 내는날입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눌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기록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 ▶11월 6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31주간화요일
- ▶11월 8일(목) 낮 12시, 연중 제 31주간목요일
- ▶11월 8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31주간목요일

◎ 성시간

11월 8일(목) 오후 8시 미사 및 성체헌시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위령성월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분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2007-43

2007. 10. 28.

연중 제 30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화 답 송 | 지의 임금이신 주 하느님, 영원히 주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62) 이세상 지나가고
봉 헌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 체 (493) 살아계신 주 성열
되 장 (83) 주 찬미하라

독서

11월 4일 김직현 김인자
11월 11일 노재현 노정은
11월 18일 노원균 노숙희

봉헌

11월 4일 허문애 허종애
11월 11일 김직현 김인자
11월 18일 노재현 노정은

복사

11월 4일 지홍 한힘
11월 11일 원영 현재
11월 18일 경은 지현

2007년 10월 28일	
주일헌금:	\$ 637.00
교무금 :	\$ 20.00
Evangelization of Peoples	\$ 10.00
Total:	\$ 667.00